

불평등 제시 방식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 경 진 한 인 숙 김 혜 숙[†]
월드비전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지각 및 학업동기를 알아보고 불평등 제시 방식(프레이밍)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프레이밍 효과가 불공정 지각 혹은 정체성 위협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남한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예상대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낮은 학업동기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 예측과는 달리 높은 학업중요도를 지각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학업 격차의 원인에 대한 불평등 제시 방식(프레이밍)을 조작하여 남한유리함 프레이밍조건에서 북한 불리함 프레이밍이나 통제조건에서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지각 및 동기가 더 높은 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치하게, 현재 존재하는 학업격차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교육과정 때문으로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제시되었을 때 혹은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통제조건) 더 높은 학업중요도를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프레이밍 효과는 불공정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 방향성은 예측과는 달리 남한유리함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서보다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지각이 더욱 높아졌고 그에 따라 학업중요도 지각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동기의 경우, 가설대로 남한 유리함 조건일 때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일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불공정성 지각이나 정체성위협에 의해 매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 청소년, 심리적 이탈, 불평등 프레이밍, 불공정 지각, 정체성 위협, 학업중요도, 학업동기

* 본 논문의 일부는 안경진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hsk@ajou.ac.kr

1990년 북한의 식량난이 시작되면서,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 이탈민의 수는 2015년 현재 약 2만 6천여명을 넘어섰다.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민의 사회적응 문제 및 지역사회 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 들어, 남한에 입국하였음에도 남한의 정체성을 획득하기보다 제 3국으로 이주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재입북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남조선으로 나간 사람들은 냉대와 멸시, 천대를 받고 있으며,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KBS 뉴스, 2012. 11. 17). 이 같은 재입북 사례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민을 향한 차별과 소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KBS 뉴스, 2013, 6.21).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태가 증가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현재까지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실험 연구들은 대부분 주류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심리에 관한 김혜숙(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감정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독특하고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일으킨다. 다수 집단의 편견과 차별에 직면해 있는 소수집단의 심리과정은 흔히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의 심리로 특징지워 진다(Crocker, Voelkl, Testa, & Major, 1991). 즉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적 낙인의 결과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자아 존중감 저하, 집단 정체성의 약화,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사회 평가에 대한 귀인 모호성 경험, 고정관념 위협 및 자기고정관념화 등 다양한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각할 때, 집단

간 사회적 갈등 및 사회 적응문제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 집단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적응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평등 제시방식(남한청소년에게 유리한 교육과정 프레임 혹은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불리한 교육과정 프레임)에 따른 학업중요도 지각 및 학업 동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평등 제시방식에 따라 다른 학업태도를 보일 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불평등 프레임이 불공정성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하기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영역 관련 심리적 이탈(disengagement)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며, 나아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적응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및 학업적응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과 관련한 최근 경향 중 하나는 여성 및 가족 동반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단위 입국비율이 30~50%정도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등 연령층도 크게 확대되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보고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육현황자료(2012)를 살펴보면, 2005년 421명 이었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2012년에는 1,99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도 학업이 필요한 10대, 2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재학생수가 160명으로, 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수 644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배제하고 생각한 것으로, 다른 대안학교 재학생 수 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기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대안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이주 청소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새로운 사회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박윤숙, 2007; Gillock & Reyes, 1990; Jones, 1997).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이주과정에서의 가족해체, 그로인한 적절한 가족지지의 부재,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의 과업성취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 청소년 교육종단 연구(2012)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태도에 관해 1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1년에 비해 다소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과목에 대한 수업이해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학업동기 또한 다소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업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4월 기준 중학생 12.9%, 고등학생 28.1%로 매우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2012년 현재 크게 감소하여 중학생 3.8%, 고등학생 4.8%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남한청소년들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업적응 측면과 관련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북한 교육체계 및 교육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한 학력차이 문제를 토로하였다(교육인적 자원부, 2004; 길은배, 문성호, 2003; 박윤숙, 윤인진,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9,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교육체계 불평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집단의 학업태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차별 대상이 되는 집단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특히, 낙인 정체성을 가진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부정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평가 영역의 중요도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Schmader & Major, 1999).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존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영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Crocker, Cornwell, & Major, 1993; Crocker, et al., 1991; Lesko & Corpus, 2006; Major, Kaiser, & McCoy, 2003; Major, Quinton, & Schmader, 2003). 이 같은 현상은 미국 교육 맥락에서도 입증되었다. 흑인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자존감과 약한 상관이 있었으나, 백인 학생들의 성적은 자신의 자존감과 강한 상관이 있었으며(Osborne, 1995), 이는 흑인 학생들의 경우 백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Major(2001) 역시 소수집단은 자신의 인종집단이 평가영역에서 불공정하게 위협받는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다른 심리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평가결과가 사회의 편견에 의해 영향받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믿음에 의하여 소수집단은 평가영역을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평가방법의 신뢰도를 낮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백인학생들보다 자신의 인종집단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Major, 2001),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백인들보다 더 차별받거나(Turner & Turner, 1975), 정책적으로 피해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Crocker, Luhtanen, Broadnax, & Blaine, 1999). 이러한 결과는 라틴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Penley,

Gould, dela Vina, & Murphy, 1989). 이에 따라 이들 인종은 자신들이 고정관념과 차별이 대상이 된다고 믿는 영역(예를 들어, 학업)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여 심리적으로 이탈(disengagement)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이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ajor, Schmader과 Gramzow (2001)의 연구는, 아프리카계 학생들의 경우 불공정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 큰 학업영역의 평가절하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의 인종이 차별받는 대상이라고 지각할수록 사회 체제의 불공정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게 되고, 또한, 불공정을 지각하는 것과 학업중요도 평가절하역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이처럼 평가영역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평가절하가 평가영역에 대한 동기, 자신감 및 지속적인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rocker & Major, 1989; Lesko & Corpus, 2006; Steele, 1992, 1997).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부정적 결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영역에 대한 중요도 지각 및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을 제시하는 방식(즉, 프레임)에 따라 평가영역에 대한 학업태도 및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을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다수집단 유리함' 프레임과 '소수집단 불리함' 프레임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불평등 제시방식에 따른 학업태도

Branscombe(2004)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들은 '흑인의 불리함'보다 '백인의 유리함'으로 인종 불평등이 점화되었을 때, 더 많은 죄책감을 나타내었다(Branscombe, Slugoski, & Kappen, 2004; Powell, Branscombe, & Schmitt, 2005; Swim &

Miller, 1999). 유사하게, 평등을 중요시하는 백인들에게, 백인들의 유리함은 일하지 않고 얻은 것(즉 불로소득)이라는 증거를 노출시켰을 때, 소수 불리함이 부당한 것이라는 증거를 노출시켰을 때보다 내집단에 대한 존경심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Chow, Lowery, & Knowles, 2008). 이는 다수집단의 유리함 없이 소수집단의 불리함이 존재할 수는 없으나, 유리함과 불리함이 심리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Chow et al., 2008; Iyer, Leach, & Crosby, 2003; Lowery, Chow, Knowles, & Unzueta, 2012; Lowery, Chow, & Randall-Crosby, 2009; Lowery, Knowles, & Unzueta, 2007; Powell, Branscombe, & Schmitt, 2005; Swim & Miller, 1999; Lowery & Wout, 2010). 보다 최근 들어, Lowery 등(2012)도 백인들에게 불평등에 대한 프레임을 달리 하였을 때 소수 집단을 돕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즉, 백인들에게 내집단의 이득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의 유리함으로 제시하였을 때, 소수집단이 불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보다 소수집단을 돕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보다 큰 지지를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서로 다른 불평등 제시 방식은 소수 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Lowery & Wout(2010)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각하는 것이 항상 하위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평가 영역의 중요도를 과소평가 하도록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오히려 불평등의 원인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이라고 제시한다면, 하위 집단 구성원들은 학업 몰입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흑인, 라틴 혹은 여성 피험자들에게 '교육 분야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들은 흑인 지원자에게 불리한 입학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제시할 경우 학업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나타난 반면, '백인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집단 불리함 프

레이프 조건일 때 학업과 자존감의 상관이 약화된 반면, 외집단 유리함 프레임 조건일 때에는 학업과 자존감의 상관이 강하게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소수 집단 성원들에 있어 불평등 접화가 내집단을 향한 경우 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자존감 손상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불평등의 원인이 외집단을 향한 경우 평가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유지되었다. 이 연구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불평등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몰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을 논하는 방식(프레임)을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인종 소수자 및 여성들의 학업 몰입 정도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흑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매개변인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단지 내집단 프레임의 경우 외집단 프레임과 달리 자신의 학업 수행이 낮은 것이 자기자신의 능력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혹은 사회의 편견때문인지 귀인이 애매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 영역의 중요성을 짚아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또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가져오는가, 또한 그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위협에 따른 학업태도

이러한 심리적 이탈(disengagement)과정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적 거절, 부정적 고정관념, 낮은 수행능력 등으로 인한 개인적 자기 혹은 사회적 자기가 위협받았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Major, 2001).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영역의 중요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더불어 외집단과 비교해 내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각되는 영역의 중요도를 평가절하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직접적인 위협이 학업영역의 중요성의 평가절하를 이끌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라 정체성 위협감에 대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Lowery 등(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불평등 프레임이 잠재적인 자기-관련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백인들에게 내집단의 이득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의 유리함으로 제시하였을 때, 소수집단이 불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보다 자기관련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집단 존경심이 약화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수집단을 돕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보다 큰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Lowery 등(2012)은 이 결과가 내집단 존경심이라는 자기관련성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있다고 제시하였을 때 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할 경우, 더 높은 자기관련성에 따라 보다 강한 정체성 위협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지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불공정성 지각에 따른 학업 태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있어 불평등 프레임에 따른 학업 태도의 변화가 위와 같은 다른 과정에 의해서도 매개될 수 있을지를 또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즉, 서로 다른 불평등 프레임(북한 불리함 대 남한 유리함)에 따라 자기 관련성 지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교육체제 혹은 남한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업 동기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불평등을 표현하는 방

식에 따라 학업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서로 다른 불평등 표현방식이 불공정성 지각을 다르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불리함으로 불평등을 표현하였을 때 남한 유리함으로 기술하였을 경우보다 더 자기관련성이 높으므로 더욱 교육체제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업의 중요도 지각 및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는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선행연구에서 (Schmader 등, 2001) 사회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수집단 사람들이 더욱 학업 성취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데 기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평등 제시방법이 그들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흔히 남한의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을 향한 고정관념과 불평등을 경험하여 학업 영역으로부터 심리적 이탈(disengagement)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이탈을 줄일 수 있는 심리학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실제로 남한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보고하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을 지각할수록 학업동기 및 중요도 지각이 낮아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불평등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들의 학업태도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및 동기 평가절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할 것이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보고할 것인데, 이 불공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연구 1, 2) 불평등을 제시하는 방법을 조작하여 남한 청

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격차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제시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제시하였을 때 혹은 구체적으로 불평등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할 것이다(연구 2).

이와 아울러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제시방식이 학업 동기 및 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정체성 위협 혹은 불공정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불평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제시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 불평등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인식하여 정체성위협을 더 크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학업 동기 및 중요도 지각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불평등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시될 경우 불평등과 자신을 덜 연합시켜 정체성 위협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학업동기 및 중요도는 유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정체성 위협뿐만 아니라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 효과도 검토하고자 하여, 남한 유리함 조건보다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에서 불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성 지각이 궁극적으로 학업동기 및 중요도 평가절하를 가져오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개 과정의 검토는 선행 연구(Lowery & Wout, 2010)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영역을 평가절하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아울러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육체제의 불공정성과 학업중요도 지각, 그리고 학업동기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 저하와 관련되는지를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1

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우선,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보고할 것이다(가설 1).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남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지각할 것이며(가설 2), 아울러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낮게 보고할 것이다(가설 3).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총 110명으로,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중학생 51명, 고등학생 59명)를 다니는 남한 청소년 55명(여성 24명, 남성 31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22명)과 북한이탈 청소년 55명¹⁾(여성 33명, 남성 22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연령은 16~20세로, 평균 연령은 17세($SD=1.1$)였다.

절차

참여자들은 교실에 앉아 학년별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진행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학업영역에 대한 태도 조사’라고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설문지를 통해 몇 가지 문항을 평가하였는데, 각 문항들의 제시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불공정한 정도를 평가하였고, 그 후 학업영역의 중요도와 동기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격차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측정도구

남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지각

교육 시스템에서 인종 불공정 지각을 측정한 Lowery & Wout(2010)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5문항으로 “대한민국 교육 체제상,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보다 더 쉽게 학업 성공을 이룬다”,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격차는 불공정한 교육체제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체제상,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높은 학력을 성취하기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모두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불공정 지각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가 .28로 매우 낮게 나타나 불공정 5번 문항(“대한민국 교육 체제상,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높은 학력을 성취하기 어렵다”)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영역 중요도

실험 참가자들의 학업중요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owery & Wout(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내용은 모두 5문항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좋은 학업 성적은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이며 평가척도는 모두 6점 척도이다(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뒤에 3문항을 역산하여 5문항을 평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영역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5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0.67이었다.

학업 동기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학업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문항을 사용하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중·고등학교입

였다.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교과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가 사용되었다. 앞의 네 문항들은 모두 6점 척도였고(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마지막 두 문항은 6점 척도(1=중학교, 6=대학원)로 측정하였다. 문항들 간 내적 신뢰도는 .68이었으므로, 이후 6문항을 평균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강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교육격차의 심각성 지각

참여자들이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학업격차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교육 현장에서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 간에 학업격차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다, 6= 매우 심각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참가자들이 학업 중요도, 학업동기 및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지각을 다르게 보고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출신(2: 남한 vs. 북한)과 학년(2: 고1 vs. 중3)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각 종속변인 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었다.

학업영역의 중요도

우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학업영역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2(청소년 유형) x 2(학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F(1, 108)=.13, p=.715$)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출신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108)=13.70, p<.001$. 즉 남한 청소년들($M=3.85, SD=.84$)이 북한이탈 청소년들($M=3.28, SD=.78$)보다 학업중요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중요도 지각은 평균 3.28로, 척도의 중간치인 3.5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출신과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1, 106)=3.70, p=.057$. 이에 출신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한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 학년차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F(1, 106)=1.74, p=.190$),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년차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F(1, 106)=3.58, p=.061$. 즉,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 청소년에 있어서는 중학생들($M=3.42, SD=.76$)보다 고등학생들이($M=3.21, SD=.80$) 학업중요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으나, 남한 청소년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각 학년에서 출신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라는 출신에 따른 차이가 없었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은 표준편차)

변인	남한		평균	북한이탈		평균	전체평균
	중3	고1		중3	고1		
학업중요도	3.69(.86)	4.09(.78)	3.89(.84)	3.42(.75)	3.21(.80)	3.32(.78)	3.61(.86)
학업동기	3.11(.73)	3.59(.64)	3.44(.72)	3.42(.56)	3.10(.74)	3.26(.70)	3.35(.86)
교육체제불공정	3.82(1.4)	3.77(1.3)	3.78(1.3)	4.89(.83)	4.54(.96)	4.72(.92)	4.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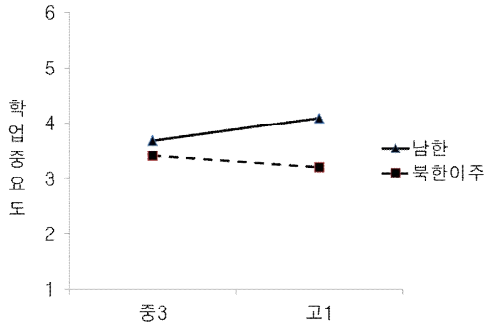


그림 1. 출신과 학년에 따른 학습중요도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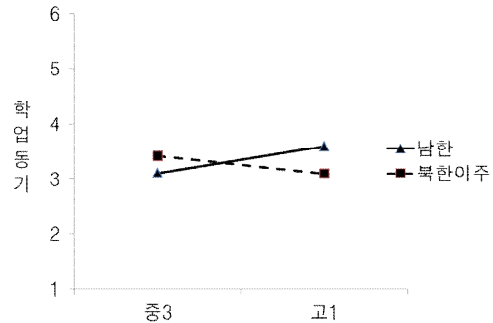


그림 2. 출신과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

던 반면($F(1, 106)=1.08, p=.301$),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신에 따른 중요도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1,106)=16.34, p<.001$. 그 평균치를 살펴보면, 남한 고등학교 학생들($M=4.09, SD=.78$)이 북한이탈 고등학교 학생들($M=3.21, SD=.802$)보다 더 뚜렷하게 높은 학습중요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가설1을 일부 지지해 준다.

학업 동기

우리는 또한 참여자들의 학업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학년과 출신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F(1, 106)=.19, p=.66$)이나 출신($F(1, 106)=.58, p=.44$)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출신과 학년의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04)=8.1, p<.01$. 이에 따라 학년에 따른 출신의 학업동기 차이를 확인하고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즉, 학업동기를 보고함에 있어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남북한 출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66, p=.106$),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신에 따른 동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서 남한 고등학교 학생들($M=3.59, SD=.64$)이 북한이탈 고등학생들($M=3.10, SD=.74$)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다, $p<.05$. 특히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은 학

업동기의 중앙치인 3.5보다 더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가설 1이 일부 지지되었다.

교육체제의 불공정 지각

우리는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공정 5번 문항(즉, 대한민국 교육체제 상,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높은 학력을 성취하기 어렵다)에 대해 출신과 학년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신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08)=15.60, p<.001$.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이($M=4.65, SD=.97$) 남한 청소년들($M=3.80, SD=1.3$)보다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더 강하게 보고하였다. 불공정 문항에 대한 다른 상호작용 및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1$.

학업격차의 심각성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격차를 심각하다고 지각하는지, 출신에 따라 학업격차의 원인을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격차의 심각성 지각에 있어 학년과 출신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미하였다(학년 $F(1, 108)=6.88, p=.01$; 출신 $F(1, 108)=64.40, p<.001$). 북한이탈 청소년

들($M=5.31, SD=.602$)이 남한 청소년들($M=4.05, SD=.989$)보다 학업격차의 심각성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들($M=4.92, SD=.95$)이 중학교 학생들($M=4.41, SD=1.06$)보다 학업격차의 심각성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이외에 다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1$.

교육체제의 불공정 지각과 학업 중요도 및 동기와의 상관

우리는 가설 3에서, 교육체제의 불공정 지각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학업 중요도 및 동기에서 출신에 따라 교육체제 불공정 지각이 다를 것을 발견하였다. 남한 학생들과 북한이탈 학생들에 있어 각각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되었다. 남한 학생들의 경우 불공정지각과 학업동기의 상관($r=.177, p>.1$) 및 학업중요도와의 상관($r=.233, p=.093$)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북한이탈 학생들의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r_{중요도}=.424, p<.01, r_{동기}=-.440, p<.01$). 즉, 남한 학생들은 불공정 지각과 무관하게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보고한 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공정 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중요도는 높아졌으나 학업동기는 낮아졌다.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지각을 예측변수로 하

고 학업중요도와 학업동기를 기준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중요도를 기준변수로 한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였으나 변인 간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크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를 높게 보고하였다, $\beta=.424, p<.01$. 이 같은 정적관계는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진행된 미국의 선행연구 및 우리의 가설과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학업동기의 경우, 예상대로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였고 변인 간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크게 지각할수록 학업동기를 낮게 보고하였다, $\beta=-.440, p<.01$. 즉, 우리는 가설3에서 불공정 지각이 높을수록 학업동기와 학업중요도가 모두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불공정지각이 높을수록 학업중요도는 높아지지만 학업동기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들이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학업동기, 그리고 학업중요도를 다르게 지각하는가를 검토하였고 또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부적으로 예언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한 청소년들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 2.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요 종속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1. 불공정 지각	-	.424**	-.440**	-.334*
2. 학업 중요도	.177	-	.305*	-.027
3. 학업 동기	.233	.334*	-	.430**
4. 교육격차의 심각성	.109	-.119	.107	-

주. 대각선 아래는 남한 청소년의 상관, 위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관

* $p<.05$, ** $p<.01$, *** $p<.001$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은 남한 고등학생들보다 더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보고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지각 역시 남한청소년들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가 교육체제의 불공정 지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동기를 낮게 보고하였으나 다른 한편 학업중요도를 높게 지각했다.

연구 1에서 나타난 또다른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특히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보다 학업영역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한 학생들과의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탈 중학생의 경우 남한 학생들과 유사한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보고한 반면,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더 낮은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학업중요도 지각이 낮아지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바대로 소수 집단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일어나 학업 중단률이 증가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학업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는 심리적 이탈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연구 1의 결과는 또한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영역에 대한 태도에 불공정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 프레이밍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불평등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특정영역에 대한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불평등 프레이밍을 조작하기에 앞서, 본 연구 1

의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에 불공정성 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의외의 결과는, 불공정지각이 커질수록 학업동기는 예상대로 낮아졌지만 학업중요도는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의 이유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교육체제가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으로써 그만큼 더 큰 불만과 차별을 토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1은 충분한 수의 북한이탈 학생들과 암한 학생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들이 다른 남한 청소년들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적용 될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학업에 대한 동기와 중요도 지각이 낮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평등 프레이밍이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한 교육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제시방법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 일 경우,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이었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불공정 프레이밍이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불공정 지각의 크기 혹은 정체성 위협이 매개하는가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또한 연구 1의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 지각이 오히려 높아짐-를 반복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남한 학생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한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의 부정적 학업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 혹은 구체적으로 불평등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시되었을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제시될 때 혹은 구체적으로 불평등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할 것이다.

가설 2. 불평등 프레임이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불공정 지각 혹은 정체성 위협이 매개할 것이다. 즉, 불평등 프레임이 남한 유리함으로 제시되는 경우 북한 이탈 불리함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자기관련성이 낮고 이에 따라 정체성위협 혹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낮게 지각함으로써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총 63명으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²⁾를 다니는 북한이탈 청소년(여성 33명,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17~20세로 평균 연령은 18.5세($SD=1$)였으며, 본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초콜렛 바를 받았다. 이 중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참여자 3명을 제외하고 총 60명(여 33명, 남 27명)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교임

절차

참여자들은 2명에서 5명 단위로 해당 학교 실험 교실에 준비된 개인 의자에 앉아 질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자는 본 연구가 ‘학업관련 요인을 찾고자 하는 실험’이라고 소개 한 다음, 실험참여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실험에 대한 사전설명이 끝난 후 스크립트와 측정 항목들이 포함된 질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질문지의 첫 페이지에는 집단정체성을 측정하였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교육체제의 불평등 프레임 스크립트를 제시하였다. 스크립트는 남한 학생들과 북한이탈 청소년들간 학업 격차의 원인에 대해 총 3조건(남한 유리함/북한이탈 불리함/통제)으로 조작되었으며, 참가자마다 무선으로 한 조건에 배정되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 후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격차에 대한 내용으로, 남한 유리함 조건에서는 이같은 교육격차의 원인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반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에서는 교육격차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조건에서는 교육격차가 존재한다고 기술할 뿐 특별한 원인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불평등 프레임에 대한 강화를 위해, 스크립트를 읽은 뒤 자신이 느끼는 학업불공정(남한 유리함/북한이탈 불리함)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학업중요도, 학업동기 그리고 정체성 위협을 측정하였고, 남한 교육체제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대해 불공정한 정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각각의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다.

남한 유리함 조건

학생들의 출신에 따라 학업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청소년 중 남한 청소년들이 1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5위를 기록했다. 남한 청소년들이 이주청소년들(미국, 일본, 동남아, 북

한 등)보다, 대도시 지역 고교가 읍·면지역 고교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교육전문기관 ○○교육평가연구소는 이 같은 ‘2013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평가는 지난해 전국 일반계 고교 1525곳의 2학년 47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것이다... (중략)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수준이 크게 뒤쳐졌다. 남한 청소년들은 과목 평균에서 영어(70.8점) 수학(73.5점) 모두 가장 높았던 반면, 북한이탈 청소년은 영어(52.4점)와 수학(58.6점)에서 최하위였다. 안성훈 교육평가 연구원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편”이라며 **“이 같은 학업격차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지난해 입시결과 분석에서도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보다(입시율) 월등히 앞서있었다”며 **“이 같은 격차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위와 같은 기술문) **“이 같은 학업격차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지난해 입시결과 분석에서도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보다(입시율) 월등히 앞서있었다”며 **“이 같은 격차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불리한 교육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 조건

(위와 같은 기술문) 안 연구원은 “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지난해 입시결과 분석에서도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보다(입시율) 월등

히 앞서있었다”며 **“이 같은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측정도구

각 문항은 따로 제시되지 않는 한 모두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학업 중요도

연구 1에서 사용한 5문항 중 문항간 상관을 고려하여 “나는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학업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4로 역산문항을 변환하여 4문항을 합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중요도를 나타낸다.

학업 동기

학업동기 역시 연구 1에서 사용한 6문항 중에서 2문항을 제외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교과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가 사용되었고, 마지막 두 문항은 5점 척도(1=고등학교, 5=대학원)로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6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4문항의 신뢰도가 .41로 다소 낮게 나타나 첫 번째 문항(“가능하면 더 많은 교과 공부를 하고 싶다”)을 제거하고 3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세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3이었다.

정체성 위협

불평등이 제시된 후 참여자들이 정체성 위협을 얼마나 지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정체성 위협을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체제는 북

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교육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높은 학력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교육체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교육체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률도 증가할 것이다.”이었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는 .61이었다.

제시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 지각

참여자들이 스크립트에서 제시된 교육체제의 불평등을 얼마나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2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한 학업격차가 얼마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한 학업격차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으며 뒤에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을 높게 지각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두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55였다.

집단 정체성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태도에 있어 집단 정체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남한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김혜숙(1994)의 집단 자아존중척도 중 4문항을 발췌하여 집단정체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학업수행능력(성적)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태도에 있어 참여자들의 학업수행능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기 말고사 성적을 물어으로써 학업수행능력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 점검

실험 참여자들이 불평등이 제시된 이후 그 원인을 정확히 지각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기사에서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었

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즉 이 질문에 대해 남한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교육과정 /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교육과정 /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문항에 올바르게 답하지 못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참여자들이 불평등 제시방법이 제대로 지각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점검을 진행한 결과, 통제 조건의 참여자 3명이 문항에 바르게 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3명의 데이터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고, 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제변인 - 집단 정체성과 학업수행능력(성적)

우리는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및 동기에 있어, 집단정체성 혹은 학업수행능력이 학업태도(중요도, 동기, 불공정 지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건 별로 집단 정체성과 학업수행능력을 살펴본 결과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정체성 $F(2, 60)=.08, p>.1$; 학업수행능력 $F(2, 60)=2.07, p>.1$).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는 집단 정체성과 학업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 측정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학업 중요도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들

표 3.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불평등 제시방법 조작		
	남한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통제(SD)	유리함(SD)	불리함(SD)
학업 중요도	3.57(.82)	4.05(.82)	3.45(.74)
학업 동기	3.22(.93)	3.35(.57)	2.79(1.34)
정체성 위협감	3.69(.99)	3.59(.69)	3.57(.89)
불공정 지각	2.92(.71)	3.84(.57)	3.45(.64)

의 학업중요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60)=3.47, p<.05$. 그러나 본 연구는 남한 유리함 조건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및 통제조건과의 차이를 가정했으므로, 조건에 따른 계획비교(planned comparison)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비교는 남한 유리함 조건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을 비교하였으며(남한 유리함=1, 북한 불리함=-1), 두 번째 비교는 남한 유리함 조건과 통제조건을 비교하였다(남한 유리함=1, 통제=-1). 분석 결과,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4.05$)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참여자들($M=3.45$)보다 학업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t=2.51, p<.05$.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교육체제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M=4.05$),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M=3.57$)보다 더 높은 학업중요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1.91, p=.06$.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제시된 학업격차의 원인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을 때 혹은 불평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학업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학업 동기

우리는 또한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동

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59)=1.86, p=.17$. 그러나 우리는 앞서 남한 유리함 조건과 다른 조건 간에 차이를 예언했으므로, 조건에 따른 계획비교(Planned comparison)를 다시 한 번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3.35$)은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2.79$)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t=1.85, p=.07$), 남한 유리함 조건과 통제조건($M=3.22$)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39, p>.1$. 이러한 결과는 학업동기에 있어서는 특히 북한이탈 불리 프레임이 통제조건이나 남한유리 프레임에 비해 더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의 참여자들 및 통제조건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학업중요도를 보고하였고, 학업동기 또한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학업동기에 있어 남한 유리함 조건과 통제조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매개변인

불공정성 지각. 우리는 또한 남한 유리함 조건 참여자들이 다른 조건의 참여자들과 불공정 지각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남한 유리함 조건 참여자들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혹은 통제조건보다 학업격차의 불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조건에 따른 일원변량분석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58)=11.24, p<.001$. 계획비교 결과, 예상과는 달리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3.84$)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3.45$)보다 학업격차를 더 불공정하다고 지각하였으며($t=2.07$,

$p < .05$), 또한 남한 유리함 조건 참여자들이 통제 조건 참여자들($M=2.9$)보다 불공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t=4.74, p < .001$. 이와 같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업격차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업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공정하다고 지각한 연구 2 결과는, 불공정지각의 크기에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Lowery & Wout, 2010) 및 자기관련성으로 인해 남한 유리함 조건에서, 보다 낮은 불공정을 지각할 것이라는 우리 가설과도 반대의 결과이다.

정체성 위협.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라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정체성 위협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에 따른 정체성 위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2, 59)=.10, p=.90$. 이에 앞서 제시된 학업동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비교를 구성하였으나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M=3.59$)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의 참여자($M=3.56$) 간의 정체성 위협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t=.10, p > .10$. 남한 유리함 조건과 통제조건($M=3.68$)의 차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t=-.34, p > .10$. 따라서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라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정체성 위협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변인들의 상관은 표 4에 제시되었다. 상관의 형태를 보면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체계의 불공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공정 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

중요도는 높아졌으나 학업동기는 낮아졌다.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에 있어 불공정 지각의 매개과정

우리는 또한 매개변인으로 불공정 지각을 가정하였으며, 앞선 계획비교 결과에서 학업중요도와 학업동기에 있어 남한 유리함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의 차이가 가설의 방향대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두 조건에 따른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매개효과 검증(Baron & Keney, 1986)을 실시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해 간접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 유리함 조건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을 각각 1과 -1으로 재코딩하여 독립변인에 대입하였고, 매개변인으로 불공정 지각을 대입하였다. 그리고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 각각에 대한 불평등 조작의 효과를 불공정 지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3에 학업중요도에 대한 매개효과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 불평등 조작이 학업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beta=.37, p < .05$. 즉 가설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계가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제시되었을 때보다, 학업중요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에 우리는 회귀분석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불평등 프레임 조작이 불공정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beta=.32, p < .05$. 그러나 이 효과는 가설과는 달리 남한 유리함 조건에서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에서보다 교육체계의 불공정성 지각이 더 커졌음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단계로 불공정성 지각이 학업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였으나($\beta=.38, p < .05$), 이 효과 역시 가설과는 반대로(그러나 연구1의 결과와 유사하게) 불공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학업중요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성 지각을 통제하고 불평등 조

표 4.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1. 불공정 지각	-			
2. 학업 중요도	.477***	-		
3. 학업 동기	-.214	.125	-	
4. 정체성 위협	.304*	.040	-.224 ⁺	-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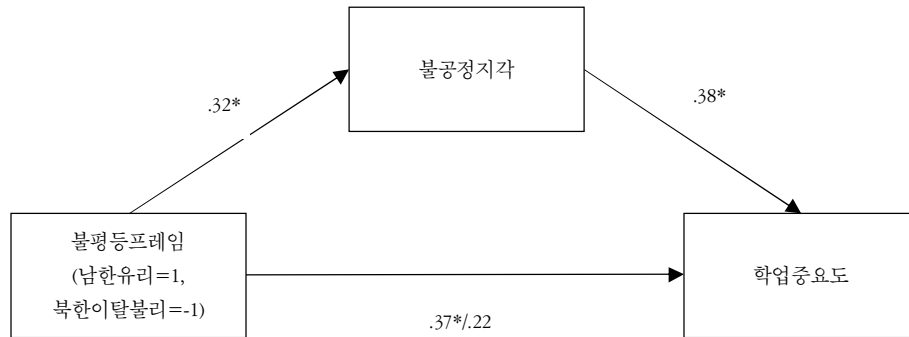


그림 3. 불평등 프레임이 학업 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공정성 지각의 매개 효과

표 5. Bootstrap에 의한 매개분석 결과

	효과크기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불공정지각에 의한 간접효과	.1968	.1301	[-.0102, .5127]

작이 학업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22, p>.10$.

매개효과 분석은 Preacher와 Hayes(2004) 그리고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불평등 제시방법이 불공정 지각을 매개로 학업중요도에 이르는 완전 매개를 1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한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102 ~ .5127]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다 할 수 있다($B = .2065, p < .01$). 이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즉,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은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참여자들보다 높은 학업중요도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이 불리함 프레임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또한 그에 따라 더 높은 학업중요도를 지각하도록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이 불리함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더 낮은 불공정성 지각을 보일 것이며, 그 결과 학업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와는 반대로 남한 유리 조건에서 북한이탈 불리 조건에

서보다 더욱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또한 연구 1과 2의 결과는 모두 불공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학업중요도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설과 반대로 이루어진 매개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에서 다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평등 프레임 조작이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불공정 지각이 매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동일한 회귀분석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남한 유리 조건에서 북한 불리조건에서보다 학업 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beta=.28, p < .07$), 또한 남한 유리조건에서 북한불리 조건에서보다 불공정성 지각이 높아졌으나($\beta=.32, p < .05$) 세 번째 단계에서 불공정 지각이 학업동기와 부적으로 관계가 있었으나 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208, p > .10$. 즉 남한 유리함 조건의 참여자들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 참여자들보다 높은 학업동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이 관계가 불공정 지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중요도 및 동기에 있어 정체성 위협의 매개과정

우리는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위협을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평등이 남한 유리함으로 제시될 경우 북한이탈 불리함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낮은 정체성 위협을 인식하여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높게 보고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남한 유리함조건과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을 각각 1과 -1으로 재코딩하여 독립변인에 대입하였고,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위협을 대입하였다. 그리고 학업중요도, 학업동기에 대한 불평등 조건의 효과를 정체성 위협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불평등 조건의 학업중요도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종속측정에서 각각 유의미하거나 유의미성에 근접한 결과를 얻었다, $\beta=.37, p<.05$; $\beta=.28, p=.07$.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불평등 조건의 정체성 위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써($\beta=.01, p>.10$) 매개과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불평등 프레임이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체성 위협에 의해 매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자기관련성으로 인한 정체성 위협감의 차이가 학업태도 변화를 이끌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남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동기가 감소하였던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제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학업태도(즉, 학업중요도와 동기)가 달라지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교육격차의 원인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을 때 혹은 불평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중요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동기에서도 교육과정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있다고 제시된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있다고 제시한 경우보다 학업동기를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 유리함 조건과 통제조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해주는 결과들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평등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될 경우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학업영역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완화된 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학업중요도 및 동기를 낮게 보고하는 심리적 이탈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들을 알아본 결과, 불공정성 지각이 학업중요도 지각에 미치는 불평등 프레임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평등이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을 때,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그 결과 학업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유리함 조건일 때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일 때보다 낮은 자기관련성에 따른 낮은 불공정성 지각, 그리고 그에 따라 학업중요도를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가 높아진 결과는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유리함 조

건에서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에서보다 더 큰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지각하였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보(즉, “북한이탈 불리”)보다 특출한 외집단과의 비교 정보(즉, “남한 유리함”)가 더욱 관련성이 높게 지각되고 그 결과 판단에 더욱 가용적으로 되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 data를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불공정성 지각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화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 논의

우리는 연구 1과 2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지각하는지, 이것이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높게 지각할 경우 더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평등 제시방법을 조작하여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1의 결과,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평소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중요도를 지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특히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은 남한 고등학생들보다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은 불공정 지각에 따라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예상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불평등 제시방법을 조작하고 그 후 교육체제 불공정성, 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를 측정하여, 불평등 프레임이 학업중요도 지각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성 지각과 학업중요도

및 동기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라 학업태도(학업중요도 및 학업동기)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가설과 일치하게 불평등 제시방법이 북한이탈 불리함 조건일 때와 비교해 남한 유리함 조건일 때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육체제의 불평등이 ‘남한 청소년 유리함’으로 제시되었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 불리함’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2의 매개분석 과정은 이 효과가 불공정지각의 차이 혹은 정체성 위협감에 의해 나타난다는 가설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학업중요도에 있어 불평등 제시방법에 따른 불공정 지각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불공정 지각의 매개효과 나타났다. 이는 우리 예측과는 달리 남한 유리함 조건에서 더 높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을 지각함으로써 높은 학업중요도 지각을 이끌었던 것이었다. 또한 학업동기에 있어 불공정 지각 및 정체성 위협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불공정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가 높아진 결과는 연구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부분이었으나, 이는 미국의 선행연구(Lowery & Wout, 2010) 및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연구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만큼 더 학업이 중요하다고 지각하게 됨으로써 불평등에 대한 더욱 더 큰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는 그만큼 학력이 성공에 중요해지는 사회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

기 때문에, 교육체제가 남한에 유리하다고 들은 경우 남한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불공정한 교육기회를 가진다고 지각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욱 학업의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국 연구 결과와 다르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불리함’ 프레임보다는 ‘남한 유리함 프레임’의 경우에서 불공정성 지각을 보다 높였으며, 한편 불공정성 지각이 높아질수록 학업중요도 지각이 높아졌다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과연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심리적 이탈을 완화해 주는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남한유리 프레임이 북한불리 프레임에 비해 학업중요도 지각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다른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더욱 높게 지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2에서는 이와 같이 ‘북한이탈 불리함’ 프레임에서보다 ‘남한 유리함’ 프레임의 경우에서 더욱 교육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된 이유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집단주의 문화나 가치관이 비교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고 또한 자기관련성이 높게 지각되도록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소수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소수집단 불리함’(즉,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이 ‘다수집단 유리함’(즉, 상대 집단에 대한 정보)의 프레임보다 더욱 자기 관련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심리적 이탈이 완화된다고 제안한 Lowery & Wout(2010)의 과정과는 다르다. 이러한 프레임 효과의 과정-특히 비교를 포함하는 프레임 과정-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학업중요도와 달리 학업동기에 있어서는 불공정성 지각의 정적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한 결과 예상대로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으며 연구2의 통제조건에서도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

들은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였다. 비록 이러한 효과가 불공정성 제시방법을 조작한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적 효과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학업동기를 낮추는 부적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현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지각할 경우 낮은 학업동기를 보고하여, 학업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연구 2에서 남한유리 불평등 프레임이 어떠한 매개 과정을 통해 학업동기를 유지하도록 이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불평등 제시 방식(즉, 북한이탈 불리보다는 남한유리 프레임)이 학업동기의 평가절하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영역에 대한 심리적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어떠한 매개 과정을 거쳐 ‘남한 유리함’ 불평등 프레임이 높은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함에도 학업동기를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기술한대로 본 연구 결과는 학업 동기와 학업 중요도 지각이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각각 불공정성 지각과는 반대 방향의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업태도 관련 미국 연구들에서는 주로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 있어 불공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학업중요도 지각이 낮아져서 학업 영역에 있어서 심리적 이탈을 보이고 그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등한시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학업중요도 지각이 학업 동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연구 1, 2)에서는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중요도(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 지각이 높아 졌는데, 다른 한편 학업동기(예를 들어,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등)는 불공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학업중요도 지각이 불공정성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와는 다른 심리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즉, ‘남한우리’ 불평등 프레임에 의해 교육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게 되고 이에 대해 ‘나에게 학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남한 사회의 교육체제는 나에게 불공정해’라고, 불합리성과 불만을 토로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 사회가 미국과는 달리 사회적 성공이 많은 부분 학력이나 학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업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힘들고, 또한 학업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자신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연구 1, 2 모두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의 내적 신뢰도가 .55-.73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Lowery & Wout (2010)의 연구에서도 흑인 학업중요도 지각이 신뢰도 .75, 불공정성 지각이 신뢰도 .67로 본 연구에서보다 더 높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의 신뢰도가 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해에 있어서의 변산이 컸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등의 몇 문항은 번역체로서 이들에게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 결과중 중요한 부분-즉, 학업중요도와 동기에 있어 남한 학생들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더 낮았고, 또한 불공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학업 중요도 지각은 높아졌으나 학업동기는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다-은 집단 차이에 대한 가설과 일치하게 나타났고, 또한 연구1과 연구2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측정들의

내적 신뢰도가 본 연구 결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동기 관련 조사와 실험연구를 반복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실험을 통해 불평등 제시방법이 학업동기 및 중요도 지각에 영향을 미쳐, 예상대로 남한우리 프레임이 북한 불리 프레임보다 더 높은 학업동기 및 학업중요도를 지각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그 구체적인 과정이 무엇인가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동기에 있어서의 심리적 이탈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적응을 위해 가지는 실질적 함의는 클 수 있다. 즉,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 동기와 학업 중요도 지각을 하고 있어 학업에 있어서의 심리적 이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히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한 사회에서 이들의 적응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다른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동기나 학업의 중요성을 유지하거나 고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남한의 교육체제가 ‘북한청소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표현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체계에 대한 기술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나 사회에서의 교육 장면에서 이러한 단순한 프레임의 변화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고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업에 있어서 또는 남한 사회에 대한 심리적 이탈을 막아줄 수 있고 또한 학업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문제-특히 학업 적응-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임에도, 북한이탈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 중,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많지 않은 연구중의 하나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 심리학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높아진 학업중요도 및 동기가 실제로 학업에 대한 그들의 노력과 행동을 예언하는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후속 실험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에 관한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4).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김선화 (2009).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제8호, 31-56.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김혜숙 (2001) 집단 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1), 1-16.

김혜숙 (2004).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김혜숙 (2014).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 서울: 집문당.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 *심리과학*, 8(1), 1-22

박윤숙 (2007).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과제. *통일로*, 222, 26-39.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한국교육개발원 (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

Baron, R. M., & Kene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ranscombe, N. R., Slugoski, B., & Kappen, D. M. (2004). Collective guilt: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In N. R. Branscombe, & B. Doosje, (Eds.), *Collective Guil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6-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nscombe, N. R., Spears, R., Ellemers, N., & Doosje, B. (2002). Intragroup and intergroup evaluation effects on intergroup behaviou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744-753.

Chow, Lowery, & Knowles, (2008). The two faces of dominance: The differential effect of ingroup superiority and outgroup inferiority on

- dominant-group identity and group 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073-1081.
- Crocker, J., Luhtanen, R., Broadnax, S., & Blaine, B. (1999). Belief in U.S. government conspiracies against Blacks: Powerlessness or system bl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41-953.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 Major, B. (2003).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Evolution of a modern classic. *Psychological Inquiry*, 14, 232-237.
- Crocker, J., Cornwell, B., & Major, B. (1993). The stigma of overweight: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70.
- Crocker, J., Voelkl, K., Testa, M., & Major, B. (1991). Social stigma: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18-228.
- Gillock, K. L., & Reyes, O. (1999). Stress,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rban, Low - Income, Mexican -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8, p259-282.
- Guimond, S., & Dambrun, M. (2002). When prosperity breeds intergroup hostility: The effects of relative deprivation and relative gratification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900-912.
- Iyer, A., Leach, C. W., & Crosby, F. J. (2003). White guilt and racial compensation: The benefits and limits of self-foc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7-129.
- Jones, J. M. (1997). *Prejudice and racism*. New York: McGraw-Hill Humanities, Social Sciences & World Languages.
- Lesko, A. C., & Corpus, J. H. (2006). Discounting the difficult: How high math-identified women respond to stereotype threat. *Sex Roles*, 54, 113-125.
- Lowery, B. S., Chow, R. M., & Randall-Crosby, J. (2009). Taking from those that have more and giving to those that have less: How inequity frames affect corrections for inequ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375-378.
- Lowery, B. S., Chow, R. M., Knowles, E. D., & Unzueta, M. M. (2009). How perceptions of inequity affect responses to ingroup harm: An inequality-framing model perspectiv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Stanford*.
- Lowery, B. S., Chow, R. M., Knowles, E. D., & Unzueta, M. M. (2012). Paying for positive group esteem: How inequity frames affect whites' responses to redistributive poli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323-336.
- Lowery, B. S., Knowles, E. D., & Unzueta, M. M. (2007). Framing inequity safely: The motivated denial of White privile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237-1250.
- Lowery, B. S., Unzueta, M. M., Knowles, E. D., & Goff, P. A. (2006). Concern for the ingroup and opposition to affirmative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961-974.
- Lowery, B. S., & Wout, D. (2010). When inequality matters: The effect of inequality frames on academic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956-966.
- Major, B., Kaiser, C. R., & McCoy, S. K. (2003). It's not my fault: When and why attributions to prejudice protec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72-781.
- Major, B. N., Quinton, W. J., & Schmader, C. (2003).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mpa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ituational ambigu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220-231.

- Major, B., & Schmader, T. (1998). Coping with stigma through psychological disengagement. In J. K.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 219-24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jor, B., Spencer, S., Schmader, T., Wolfe, C., & Crocker, J. (1998). Coping with negative stereotypes about intellectual performance: The role of psychological disenga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34-50.
- Osborne, J. W. (1995). Academics, self-esteem, and race: A look at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the disidentification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449-455.
- Oyserman, D., & Harrison, K. (1998). Implications of cultural context: African American identity and possible selves. In J.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 219-241). New York: Academic.
- Oyserman, D., & Sakamoto, I. (1997). Being Asian American: Identity, cultural constructs, and stereotype percep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3, 435-453.
- Penley, L. E., Gould, S., Vina, L. de la, Murphy, K. (1989). An early career focused study of Hispanic American college graduates in busines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1, 366-380.
- Powell, A. A., Branscombe, N. R., & Schmitt, M. T. (2005). Inequality as ingroup privilege or outgroup disadvantage: The impact of group focus on collective guilt and interracial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508-52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Schmader, T., & Major B. (1999). The Impact of Ingroup vs Outgroup Performance on Personal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7-67.
- Schmader, T., Major, B., & Gramzow, R. (2001). Coping with ethnic stereotypes in the academic domain: Perceived injustice and psychological diseng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7, 93-111.
- Sherif, M. (1966). *Group-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Shrout, P. E.,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le, C. M. (1992, April). Race and the schooling of Black Americans. *The Atlantic Monthly*, 269, 68-78.
- Steele,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identity and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ist*, 52, 613-629.
- Swim, J. K., & Miller, D. L. (1999). White Guilt: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for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500-514.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s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Vol.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B. F., & Turner, C. B. (1975). Race, sex, and perception of the occupational opportunity structure among college students. *Sociological Quarterly*, 16, 345-360.
- Turner, J. C. (1996, September).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concept of prejudice. Paper

안경진 · 한인숙 · 김혜숙 / 불평등 제시 방식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presented at the 40th Congress of the German
Psychological Society, Munich, Germany.

1 차원고접수 : 2015. 10. 07.

수정원고접수 : 2015.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5. 11. 27.

The Effect of Inequality Frames on Academic Engagement of the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Kyoung-Jin An

World Vision

In-Sook Han

Ajou University

Hai-Sook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equality frames on academic engagement of the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We also examined whether the perception of injustice or identity threat mediated the effect of inequality frames on attitudes toward academic work. In Study 1 we compare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and motivation for study of the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 students with that of South Korean student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indeed perceived lower level of importance of and motivation for academic work than South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s of Study 1 also showed that as expected, motivation for study of migrated North Korean students decreased as they perceived a higher level of injustice in educational systems of Korea. On the other hand, importance of study increased as they perceived a higher level of injustice. In Study 2 we manipulated three types of inequality framing (that is, the present academic inequality between the two groups of students was framed as South Korean students' advantage vs. as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disadvantage vs. no frame control)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academic engagement of the migrated North Korean students differed in terms of the inequality fram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expected, compared to the inequality frame in terms of North Korean students disadvantage and the control condition, the frame in terms of South Korean advantage made the North Korean students perceive higher level of importance of academic work. In addition, we found the mediation effect of the perception of injustice in educational systems for this framing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academic work. In the case of motivation for academic work, as expected, compared to the inequality frame in terms of North Korean students disadvantage, the frame in terms of South Korean advantage made the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tend to report higher academic motivation. However, we did not find the mediation effect of the perception of injustice nor the identity threats on motivation for academic work. We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Keywords : migr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psychological disengagement, inequality frames, perceived injustice, identity threat, importance of academic work, motivation for academic work